

예수님이 누구신가?

2010년 11월 21일

본문 말씀: 누가복음 9:14-24

(눅 9:18, 개역)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눅 9:19, 개역)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눅 9:20, 개역)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눅 9:21, 개역)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눅 9:22, 개역)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눅 9:23, 개역)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눅 9:24, 개역)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 이 말씀에 모순이 있습니다. ‘잃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확보해 놓은 것이 있다면 구태여 구원하고자 할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계속 목숨을 부지 하는 방법은 있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시도를 그만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코자 한다면 현재 가진 것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가진 것을 붙잡고만 있다면 저절로 잃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더라도 잃고, 잃지 않기 위해서 애써도 잃고, 이래도 잃고, 저래도 잃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이러한 형편에서 그들은 선지자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익히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라던 선지자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비로소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여망이 달성되게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예수님은 등장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유대 백성들이 제 목숨을 구원코자 기대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이닥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담박에 믿어서

구원을 따 내겠다는 의지로 충만했으며 예수님이 아마 그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전혀 구원에 보탬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 즉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요소가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외에 최종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를 달리 두지를 않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행동에 나설 때는 그냥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기를 구원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여기면서 설쳐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자신이 사실 죽은 사람의 집단에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자들로 태어납니다. 각자 지닌 이름들은 죽은 자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만이 산 자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름’이란 그 안에서 기능을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산 자의 이름을 가진 자는 산 자의 능력이 나오고, 죽은 자의 이름을 가진 자는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자신이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같고, 자신을 구원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자기 사랑은 세상에 대한 편견을 자아내게 됩니다. 세상이란 이유도 없이 무조건 내가 잘 되게 만드는 식으로 움직여질 것이라는 막역한 기대같은 것을 고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야말로 ‘무심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기다렸봤자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생긴 상황’일 뿐입니다.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으면 혹처럼 푹 튀어난 하나의 불거져나온 부분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말은 내가 따로 내 힘으로 버틸 상황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조성하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즉 나로 인하여 세상을 생겨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중심으로 세상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없이도 세상은 나름대로 상황을 구성해서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란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이고 세상도 또한 그러합니다. 세상이란 상황도 나에게 그냥 있으나마나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판국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주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나온 발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식의 인간 구원은 불가’라는 판정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자로 믿고 구원받겠다는 의지도 역시 구원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자기 부인이 안된 상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과의 관계의 특수성을 점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부인이 안된 상태에서 ‘저쪽’과 ‘이쪽’을 가름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에 내가 속해 있지 않는 저쪽 편은 당연히 예수님 편이 아닐 것이다”고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 못하는 존재들’이라서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죽은 자들’에 속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서 기존의 ‘죽음 자를 따르는 죽은 이름’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 자의 이름’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그 ‘산 자의 이름’이란 예수님께서 앞에서 기능, 즉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이 십자가 기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시되기에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은 마땅히 접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2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나라에서 구원하시면서 실시했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될 자와 구원되지 않아야 될 자의 구분은 히브리인들에게(구원될 자)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구원하셨다는 점입니다. 배로 왕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피의 강→개구리→이→파리→악질→독종→우박→메뚜기→흑암→장자의 죽음 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자기 백성을 골라내었습니다.

이 열 가지 재앙 중, 네 번째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 백성이 살던 지역과 애굽 사람이 살던 지역을 고의적으로 구분시켰습니다. 바로 이 구분은 그 어떤 인간들의 자의식과 겹쳐지지 않는 구분입니다. 이 경계선으로 인하여 성도는 자신의 자아를 대신할 새로운 자아를 얻게 되고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은 곧 하늘에 기록시켜줄 기록자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 기능의 결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누가복음-2009/052장-눅9장18-24예수님이누구신가-luk101121.mp3>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누가복음-2009/052장-눅9장18-24예수님이누구신가-luk101121.avi>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누가복음-2009/052장-눅9장18-24예수님이누구신가-luk101121.hwp>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누가복음-2009/052장-눅9장18-24예수님이누구신가-luk101121.pdf>

052장-눅9장18-24(예수님이 누구신가)-luk101121-(이 근호목사)

2010-11-22 21:09:26 녹취 : 오용익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18-24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가운데 우리 보기에 말이 안 되는 말, 모순되는 말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건진다는 겁니다. 건진다는 것은 ‘현재 내 목숨이 안 좋은 세상에서 지금 심판받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내 목숨, 나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 귀한 내 목숨을 잃지 않고 장차 영원토록 귀하게 사는 쪽으로 건지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 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 목숨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천국으로 이끌어내야 되겠다.’라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잃어버린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으면 잃은 목숨 그대로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잃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잃어버릴 것이요, 잃어져 가는 목숨을 ‘그냥 내버려 뒀. 이왕 잃는 것 지옥까지 뭐.’라고 하면 아주 곱게 지옥 갑니다.

이래도 지옥가고 저래도 지옥 간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도 헛것이요, ‘내 목숨 구원 안할래.’라고 방치해도 또 역시 잃기는 마찬가지요,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뭘 증명하고 있느냐 우리의 목숨이 결국은 구원될 수 있는 목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말고 미련 끊으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라는 말입니다. ‘귀한 나, 얼마나 귀한데! 천지가 없어져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너무 깊은 정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정을 주게 되면 자기 시나리오를 쓰게 돼요. 자기 소설을 쓰게 되면 자기 과거를 근거로 해서 미래를 내다보는데 아무리 내가 멋진 미래의 상황이나 일들이 주어진다고 고대

해도 나중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10년 기다려도 아무 일 없고 20년 기다려도 내 인생 아무 일 없고 30년 기다려도 내가 기대하는 일 안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심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무심한 세상이에요. 내 미래가 화려하게 활짝 꽃 피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게 활짝 피는 꽃은 없고 자기 머리카락만 쇠고 아무 일도 우리 인생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갑자기 천재가 된단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이 세상이란 고요히 흘러가는 물 같아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철이라는 사람이 그걸 깨닫고는 한 말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입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산이 물 되려고, 물이 어떻게 산이 되려고 하느냐는 말이지요.

물은 물인데 요동치는 물, 노란 물, 빨강물이 아니에요. 물은 그냥 물이고 앞산은 그냥 앞산입니다. 괜히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내 이름 새겨봐야 쓸데없는 낙서만 했을 뿐이지 그냥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놀랐습니다. 이 바위에 낙서를 하다니.’ 이런 반응도 없고 그냥 무심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도 눈에 보이고 아시안게임도 눈에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너는 너대로 쫓고 까불고 나는 나대로 쫓고 까불고. 그렇게 쫓고 까부는 것 중에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구원됩니다.’라고 까불어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두 글자, 소위 ‘교회’라는 것도 생겨나네요.

선지자를 기다리고 예레미야를 기다리고 이사야를 기다리고 세례요한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분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지만 그런 선지자가 왔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왔다가 사라지고 말아요. 꼭 유행가 가사 같아요. 그냥 인기 한 번 얻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반짝 하다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한때 김용옥 교수라고 해서 머리 삭발하고 목소리도 특이하게 내면서 톤 올려서 했던 사람, 장안에 꼭 떴을 때 있었어요. 그것도 한때 유행입니다. 다 지나간 거예요. 예레미야도 유행이었고 이사야도 유행이었고 주기철목사도 유행이고 한 경직 목사도 한때의 유행이고.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도 취직이 안 되었을 때니까 시간이 남아돌아서 혹시 애인할 사람이나 있는가 싶어서 기웃거린 것이지 취직만 되고 나면 다 한때의 유행이었을 뿐입니다.

한때 오락이고 놀이마당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건져보려고, 자기를 구원해보려고 하는 시도였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좋다든지 메시아에게 흠뻑 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 구원하려고 괜찮은 정보 갖고 왔나 싶어서, 그 사람에게 뭔가 한수 배우려고 그 사람을 찾는 것이지, 다 자기 구원하려고 그런 시도를 한 것이지 그 사람의 줄병이 되려고 그렇게 설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나가보면 다 한때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 절대로 내 맘대로 안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냥 강물의 한 물방울처럼, 강물에 떠가는 낙엽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강에서 훈련하다가 보트가 뒤집혀서 죽은 그 병사들, 제대하고 난 뒤에 무슨 시험을 치고 어떻게 살겠다는 계획이 나름대로 있었지만 배 뒤집어 지나가 강물 따라 다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보다 강물이 더 크고 넓고 깊었습니다. 움직이는 세상이 안 움직이려고 버티고 있는 나보다 더 물살이 썩니다. 우리는 이미 익사했어요. 예수님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익사한 상태인데 거기서 어떻게 헤엄을 쳐서 세상을 빠져나올 생각도 하지 마라. 빠져나와봐야 잃어버릴 것이고 네가 거기 그냥 있으면 그냥 빠질 것이다. 그게 네가 속한 형편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물과 인간, 세상과 인간을 두고 전에는 ‘내가 여기 있고 내 둘레에 세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상황이다.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것은 없고 전체 상황에 포함된 그 상황의 한 양상, 상황의 한 모습, 모양새라고 볼 수 있어요.

풍선을 불면 둥글게 부풀지요. 둥근 풍선을 주먹으로 쥐면 새끼풍선이 생기듯 빠져 나옵니다. 놓아버리면 원래로 돌아가지요. 나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전체 상황 속에서 주먹을 쥐면 툭 튀어나오는 불거지는 상황에 지나지 않아요. 손 놓아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요양병원 같은데 가보면 여러 개의 병상이 죽 늘어서 있지요.

다 차 있다가 어느 날 자리가 비지요. ‘김 할머니 어디로 갑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는 하얀 해골가루가 되어서 돌아오지요. 이 병동처럼 술술 빠져나가요. 머리카락 빠지듯이 술술 빠져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 할머니 또 갔구나. 다음 차례는 누구 차례인가?’

그냥 하나의 상황이에요. 전에 병원을 구성하던 병상에 누워있던 어떤 육신이 있었는데 그 육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침상은 환자가 없는 새로운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계기들이고 사건들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 따로 없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불거진 겁니다.

그 불거지고 튀어나온 새끼풍선 같은 것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요. ‘이 근호’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런 이름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 근호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면 그 주변에 누가 있다는 등, 이런 사건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은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전체 같으면 이 상황전체가 구원되어야지 그 중에서 튀어나온 새끼 풍선만 구원되는 법은 없어요. 새끼풍선 잡아당기면 전체 풍선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구원되고자 하는 시도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만’이라는 것

이 이 세상에서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이름을 뭐로 바꾸느냐, 사건과 사태로서, 움직임으로서 다 holers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요. ‘예수입니다.’라는 이름은 소용없어요. 이름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들을 모아서 ‘예수님은 저런 사건에서 튀어나온 상황이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있더라도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누구야?’라고 하면 ‘그 사람은 화가야.’라고 하지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림을 그만뒀대. 전업화가를 그만뒀대.’ 이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 그림 그리는 세계에서는 이미 사건이 종료된 겁니다.

‘김 아무개 할머니, 전에는 제일 끝에 있는 침대에 계시더니 어디 가셨는데?’ ‘죽었대.’ ‘그래? 그럼 두 번 다시 이 병원에는 못 오겠네.’ ‘갓어.’ 그렇다면 이 병원이라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없고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9절의 말을 바꾸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고쳐서 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그 사람은 세례요한 같을까,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그 사람은 엘리야가 될까,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일까? 라고 이야기들을 합시다.’라고 고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것은 너의 구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될까를 나(예수님)와 연계시키면 어떤 답변이든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되겠다는 시도자체가 세상을 잘못보고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렵게 시작한 것 같아서 결론부터 먼저 보이겠습니다.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나의 구원과 연계해서 세례요한이나 예레미야,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없고 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 가운데 하나의 꼬맹이 상황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중심이 아니거든요. 내 구원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틀리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구원과 연계해서 자꾸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거론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쨌거나 나는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어려우니 어렵다고 탓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 사랑은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 형제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없어져도 좋다는, 전적으로 자기를 없애버린 그 후의 이야기예요. 내 사랑을 접어버린 그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라는 상황만 남아 있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상황이 만들어낸 꼬맹이 풍선, 혹같이 튀어나온 꼬맹이 풍선, 하나의 주님이 사랑이 만들어낸 작은 새끼풍선 같은 덩어리, 혹 하나가 바로 내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새끼 풍선을 가위로 잘라서 떼어 내버리면 사랑에서 벌써 격리되기에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바람이 빠지면서 폭 꺼져버리지요. 전체 주님의 사랑 속에 포함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욕심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했느냐고 물어요.

‘나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듣기는 참 좋아 보이는데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을 했느냐?’라고 하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나는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도 자기를 긍정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나는 스스로 나를 부인할 정도로 나는 나답다.’ 이것도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예요. 약간의 트릭을 써가면서 자기를 긍정한 것이 됩니다. 2천년 교회 역사가운데 교회가 늘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번갈아 사용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참회하라, 회개하라, 반성하라, 가 있습니다.

참회, 회개, 반성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참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할 줄 압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을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참회하라면 참회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반성하라면 반성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한다고 회개한다고 음식도 끊고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재를 뒤집어쓰고 ‘신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술 잡숫고 음식 잡수셨지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백날 해 보세요. 참회하면 할수록 더욱 견고하게 다져지고 더 다져지기만 합니다. 거기서 아주 고단위로 순수하게 열매 맺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입니다. 이로써 나는 구원된다고 스스로 다짐에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수한 마늘 엑기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누군가 고춧가루를 뿌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마을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순수한 거기에 고춧가

루를 뿌렸다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유가 있어요. 뿌려봐서 아무 반응 없으면 진짜 자기부인이고 고춧가루를 뿌려봐서 ‘이렇게 순수한데 네가 왜 우리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나오면 아직도 자기부인이 안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춧가루 좀 뿌려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화를 내는지. 김수환 추기경은 지옥 갔습니다, 하고 고춧가루 뿌려보세요. 김수환 추기경을 존경하는 사람은 화 무지낼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고 반성하고 참회해 봤자 그 밑바닥에서 우리가 포기 못하는 것이 있는데 ‘주여, 이런 식이면 내가 구원될 수 있습니까.’라는 그 자기여망, 자기기대 그것이 다 헛짓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을 다시 하려 하는데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안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하면 우리 자신전체가, 세상자체가 그냥 상황이라서 나라는 주체가 따로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은 맞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잘되니까, 라는 그 내용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안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귀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원래는 있지도 않은 내용인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데 그 뽑아내는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구원인데, 구원할 때 뭐가 뽑혀 나오느냐 하면, ‘아, 세상은 나라는 것을 따로 뭉칠 그런 어떤 자료도 나에게 허락한 적이 없었구나. 내가 착각했고 상상을 했었구나. 내가 나로서 있다는 이 자체가 상상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식으로 건져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하는 말도 구원이 안 된단니까요.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하니.” 그 다음에 21절에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 대목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끼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인줄 압니다, 라고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걸 알고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요? 본인이.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본인이 이런 식으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구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놓고는 주께서 세상에서 버린 바 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대번에 베드로보고 사탄아, 라는 말이 나오지요. 주님께서 칭찬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했어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게 칭찬이 아닙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나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다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같은 인간인 베드로를 향하여 이중적인 말을 적용을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든 말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천국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답답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이야기하지요. 그게 20절에 나오는데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는 말은 저쪽 세상 편과 주님 편을 가름하는 경계는 베드로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쪽 주님 편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은 내편이다. ‘내가 속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그어서 저쪽은 내편이 아니기에 지옥가야 돼.’라고 네가 경계선을 지을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계선이 그어진 셈이 되지요. ‘베드로야, 정말 착하다. 너 같은 인간이 구원받는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네가 알게 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들 너처럼 날 믿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일 것 같지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전도와 선교가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합시다.’ 이것이 전도대회를 여는 목사들이 주창하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썬! 네가 안 것을 남에게 알리면 안 돼.’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2천년 교회 신학을 다 동원해도 이것이 해석이 안돼요.

그동안 교회라는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교회 자체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야 돼요. 이 아래 수정교회가 있잖아요. ‘주여, 수정교회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임무를 우리교회가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쳤습니까? 그 이단을 증거하게.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주여, 제가 지옥가도 좋으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해 주세요.’

솔직하게 그런 기도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요. 내 구원에 있지 내가 지옥가도 남들 구원한다고 하면 결국 나만 손해나게요. 지옥도 들락거리면 괜찮은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남 좋은 일 시킵니까? 미쳤어요? 나는 지옥가고 남들은 천당 가고? 꼴좋다!

그런 기도가 솔직하게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성경을 천 독하고 만 독해도 뭘 알아야지요. 만 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20절 말씀에서 경계선을 누가 쳐야 되느냐하면, 주님께서 경계선을 치신다

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기능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그런데 뭐든지 그냥 말은 소용없고 그 기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합당한 기능이 뭐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이 현재 살았다고 우기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살았다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죽은 자가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병동에서 얼마 전에 죽은 할머니가 하얀 가루가 되었는데 사흘 만에 건강하게 되어서 와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에게 가서 ‘야, 나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어.’ 할 때 그 병원에서 그동안 ‘죽으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그만이야.’라고 하면서 누워있던 환자들이 얼마나 놀래겠습니까?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자기중심으로 세상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그런 세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 와버리면 현재 침대에 누워있는 나 중심의 생각 자체가 부정되어야 마땅하고 이것은 그동안 엉터리였다, 해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내가 나라고 여기면서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엉터리인 거예요.

뭐가 엉터리이나, 그동안 내가 나만을 사랑했던 생각 자체가 다 한꺼번에 엉터리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동안 나를 사랑했고 심지어 주님도 나를 사랑하는 일에 이용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상을 잘못 봤기 때문에 뭘 생각 못했느냐하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성철스님이 해석하는 그런 세상은 소위 살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머리를 짜내서 만든 헛된 세상관입니다. 그런 헛된 세상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밀쳐서 ‘꺼져!’ 해서 죽어버린 그 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서 와버리면 기존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라고 여겼던 이 세상 관 자체가 말짱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은 다 헛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은 뭐냐, 어디까지나 내 중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했던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세상관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들이닥쳐 버리면 그 앞에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다는 자체가 죄였구나.’

사랑의 열매로서 주께서 풍선에 혹 붙어버리니까 풍선에 혹이 튀어나오는데 그 혹이 바로 나라면 그 안에는 사랑만 가득 들어 있지요. 그런데 그 풍선을 가지고 바늘로 콕 찔러버리면 거기서 내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해주셨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만 펴고, 하고 터져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너는 뭔데?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황이지요. 그러면 주인공은? 주인공은 주님만 있으며 돼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혹은 타인으로 보고 나는 하나의 주체로 본 겁니다. 저기 저 양반이 나를 구원할까, 이 양반이 나를 구원할까, 세례요한이 구원할까, 엘리야가 구원할까, 누가 구원할까, 예수님이 구원할까, 자꾸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부처를 동원하든 예수를 동원하든 관계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하는 작업을 행한 거예요. 누굴 건지기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물로 사용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고 2천년 기독교 역사가 그런 식으로 흘러온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기독교 2천년 역사가 다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주장들을 다 들어보면 자기 부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구원됩니다.’ 하는 자기가 계속해서 천당 가려는 자기공정의 바탕위에 담은 거예요. 자기 틀은 깨지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지독한 자기사랑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서 ‘아무에게나’에서 ‘아무’에 해당되는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를 분리시킵니다. 이 분리는 베드로 자기가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정당하고 내가 소속되지 않는 곳은 무조건 나의 적이라고 내가 함부로 경계선 치면 안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을 때 열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때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들끓고 파리 떼가 날아들고 악취가 진동하고 독종이 생겨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덮치고 흑암이 덮치고 집집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집안의 맏이가 죽어버리는 열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열 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냐? 네 번째 재앙이 파리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히브리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재앙을 내렸어요.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밥상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가 들끓는 이것은 히브리인이나 애굽인이나 다 같이 그 재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인 파리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경계선을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신 거예요. 차별을 둔 겁니다. 죽은 사람들 속에 산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께 경계선을 쳐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더냐?’ ‘세상 사람들이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디다.’ 그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하나님의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

옛날에는 ‘애굽에는 파리가 들끓어라. 히브리사람들에게는 파리가 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분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날 뭐라고 이해하더냐, 하지만 너희는 날 어

떻게 이해하느냐.’ 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 경계선을 치신 거예요. 이 경계선을 예수님이 치니까 베드로가 오해하기를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 편에 섰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경계선을 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경계선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라고 해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능으로 그들을 함께 끌고 자기중심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낯설고 새로운 미래로 데려갑니다.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끌고 가지를 않아요.

그들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나뉘 버리고 이미 주님께서 경계선을 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세계에 그들만을 모아서 끌고 가시는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셋! 이 말을 저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 예수라는 이름의 기능은 저 바깥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든 사도요한이든 어떤 인간이든지간에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목숨 살려보겠다고 시도하는 이것은 저 경계선 바깥인간이나 안의 인간이나 그 생겨먹은 것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예수의 이름을 줍니다. 인간의 이름이라는 것은 죽은 자에게서 받은 이름이에요. 이 근호라는 이름은 죽은 분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에요. 부모님한테는 참 죄송합니다만.

죽은 자로부터 받은 이름은 그 이름기능이 죽음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기능을 한다 그 말이죠. 자기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기능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름이 있고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기능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부여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집시다.’ 하고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또 ‘하나님, 됩니다. 내 힘으로 됩니다.’ 하고 자기 구원을 또 사탄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시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에서 나오는 어떤 기능도 너를 구원 못한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인간은 내 중심의 세계관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교회라는 상황을 구성하고자 나를 이 상황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애기 엄마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아기에서 엄마라는 상황을 부여한 거예요. 내가 애기 아빠가 아니고, 이게 내 새끼가 아니고 주님 주신 자식의 아빠기능에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전체가 다 풀리는 겁니다. 뭐만 빠지면? 나만 빠지면. 나만 빠지면, 내가 있던 그 주체의 자리에 예수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나는 뭐로 빠지느냐, 예수 이름이 벌이는, 주님께서 혹 붙여넣는 꼬마풍선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남편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회사원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와서는 집사역할을 해야 되고, 집사역할이라고 하니까 영 우리교회하고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집사역할 좀 하세요~, 집사역할을 해야 되고, 전부 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의 상황에 불과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우리가 십자가 졌다고 우리 십자가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고 까불어대면 안되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새로운 질서 속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같이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방송으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구원? 너는 구원되고 싶다고 할 자격도 안 되고 권리도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죽은 자의 이름을 가지고, 죽은 자 곧 악마의 기능을 발휘하기에 너 자신을 키우는 것은 차라리 천국에 마귀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 생각하는 것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원하는 삶 안 오니까 ‘난 이대로 살다 그만 죽을래.’ 하고 살다가 ‘행여 혹시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국을 앞질러서 1등하지 않을까, 행여 내가 재벌 되는 것이 아닐까.’ 해보지만 그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심한 세상,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세상, 그러면서 또 나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하지요.

그럼 사랑이 없다고 하는 너는 뭔데? 네가 사랑을 얻을 입장이냐 되냐 말이지요. 우리는 우리인생을 원망할 자격도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원망할 자격도 없고 ‘내 부모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아놓았습니까?’ 하는 식으로 부모를 원망할 자격도 없고 ‘내 자식은 왜 저렇게 못났지?’ 하고 자식 원망할 자격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가 주께서 불러주신 사랑의 풍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천국가고 있다는 이 새로운 낯선 질서를 받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든 것도 욕심인 것을 알았습니다.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경계선을 짓고 주께서 차별되게 십자가로 깨닫게 하시는 이 은총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알고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